

# 업그레이드 YTN! '품질향상위' 출범

## - DMB 대비, 뉴스 포맷·콘텐츠 개발 -



노사 합의로 구성된 '방송품질향상위원회'가 9월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방송품질향상위원회'는 우선 ▲ DMB 등 뉴미디어

시대를 대비한 전략 수립 ▲ 뉴스 매 체 로 서 의 IDENTITY 강화 ▲ 방송 품질 향상 등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게 된다.

'방송품질향상위원회'는 10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가을 편성 개편 때까지는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개편 이후에는 매달 1회 정기회의를 열어 뉴스와 프로그램의 포맷과 콘텐츠를 평가하게 된다.

표완수 사장은 1차 회의에 참석해 프로그램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사가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방송 품질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표 사장은 "현재의 시청층을 유지하면서 젊은 시청자

를 끌어들이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절실하다"면서 위원회에서 마련한 방안을 간부회의 논의를 거쳐 뉴스와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품질향상위원회'는 DMB 출범 등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부합하고 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된 노사합의기구이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결과는 경영진에게 제출된다.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 방송프로그램의 품질 향상 ▲ 프로그램에 관한 분석 평가와 개선안 마련 ▲ 장단기 편성전략과 편성 개편안 제시 ▲ 우수프로그램상 후보작 추천 ▲ 방송사고의 원인 규명과 사고방지 대책 마련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위원 명단>

편성심의실 : 진상욱, 한영규 / 보도국 : 김홍규, 노종민, 서영석 / 제작국 : 류희림 / 기술국 : 임영선 / 마케팅국 : 김남식 / 전략기획국 : 기정훈 / 기자협회 : 송태엽 / 카메라기자협회 : 윤성수 / 기술인협회 : 김한철 / 공추위 : 임상호.

## 해외통신원 교육



해외방송팀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YTN 해외통신원을 초청해 방송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출범한 YTN 인터내셔널이 제작하는 '제외동포뉴스'에 참여하고 있는 전세계 12개 나라에서 온 16명의 통신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은 방송기사 작성요령과 촬영기법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해 영상을 전송하는 방법 등 통신원으로서 방송참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대해 고유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통신원들은 방송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또 동포 언론에 몸담고 있는 통신원들은 방송의 질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원들은 교육 외에도 'YTN 서울타워'와 63빌딩 등을 방문해 발전하는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동포사회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제외동포재단을 방문해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 YTN-TBN DMB협약 조인



YTN과 교통전문 방송사 TBN은 7월 27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DMB 법인을 공동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업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YTN과 TBN은 DMB 초기법인 설립에 각각 5억씩 출자하기로 했으며 법인 완성 후 최종 지분율은 YTN이 1대주주로서 30%, TBN이 25% 지분으로 참여한다.

YTN과 TBN은 이를 위해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안에 DMB용 교통정보센터를 설립, DMB에 걸맞는 미래형 교통정보서비스를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뉴스전문방송사로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YTN과 국내 최고의 교통정보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TBN의 결합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이동방송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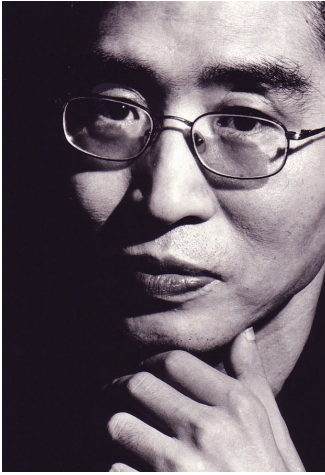
뉴미디어의 대표주자로서 지상파 DMB 사업권 획득에 매진해 온 YTN은 2년여에 걸친 준비 작업을 마치고 DMB 법인 출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 9월호 목차

- 12 | ▶ 제2창사 기획시리즈④ - 언론학자가 보는 YTN 뉴스의 가치를 발휘하는 언론으로
- 13 | ▶ 특파원 도착 인사 -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 사건기자 수습기 - '4년차 수습기자'의 변명
- 14 | ▶ 창의상 수상기 - 인터넷을 이용한 화면 수신 ▶ 사내 기고 - 지상파 DMB를 준비하며...
- 15 | ▶ YTN미디어 매체설명회-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
- 16 | ▶ 해외연수기 - 호주 그리피스 대
- ▶ 해외연수기 - 조지타운 대
- 17 | ▶ 해외연수기 - 미국 볼 주립대
- ▶ 해외연수기 - 미국 조지아대
- 18 | ▶ 프로그램 탐방 - 사이언스 +

제2창사 기획시리즈④ - 언론학자가 보는 YTN

# 뉴스의 가치를 발휘하는 언론으로



전 석 호 교수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달랐다. HBO는 무료인 CNN과는 달리 유료방송이었으며 처음으로 통신위성을 이용하여 케이블TV의 전국화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일면 기술적인 측면의 개혁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CNN은 틀렸다. 아무런 기술적 혁신이 없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뉴스원 찾기에 혈안이 된다 하여도 케이블 속에서 뉴스 전문채널을 찾으리라고는 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웃었다.

### 엘리트 채널로 자리 잡아

그러나 창립자 테드 터너(Ted Turner)는 선견지명이 있었다. 그는 미국에서의 케이블 방송이 널리 대중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대중들이 갖는 뉴스 전문채널의 소구력이 강할 것이라고 믿었다. 밤에도 새벽에도 뉴스를 찾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사회는 이미 바뀌어 가고 있다고 보았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CNN은 적중했다. 애초에 갖던 우려와 조소는 말끔히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우뚝 솟은 정상의 언론채널로 부각되었다. 세계의 뉴스 메이커들도 미국의 ABC, NBC, CBS와 같은 굴지의 공중파 방송국 뉴스는 제외해도 CNN은 꼭 찾는다고 한다. 뉴스 분야에서 CNN의 명성이 더 높다는 뜻이다.

CNN에서 언급을 빼어 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는 중군기자 피터 아넷(Peter Arnett)이다. 1934년 출생의 아넷은 196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전을 취재하다가 CNN으로 옮겨 이라크 걸프전 때 바그다드에서 사담 후세인과의 인터뷰를 끌어내어 CNN을 세계적인 매체로 자리 잡게 만드는데 공헌했다. 그 후 NBC를 거쳐 지금은 영국의 Daily Mily지에서 근무하고 있다.

'CNN 효과' 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CNN이 세계

1980년 미국 케이블 방송으로 처음 24시간 뉴스 전문채널 CNN이 출범한다고 했을 때 모두 웃었다. 이는 이보다 앞서 1972년에 처음으로 24시간 영화 전문채널 HBO가 처음 출범할 때와 양상이

의 주요 사건을 생생하게 현장에서 증계해 해당 국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나온 말이다. CNN의 세계적 비중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용어가 아닐 수 없다.

미국에 CNN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YTN이 있다. 이제 국민 누구나 거의 YTN이라는 로고를 한번쯤 들어봤거나 실제로 방송을 본 적이 있으리라 보다. 특히 국내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계층이라면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 YTN을 심분 인식할 것이니 이제 YTN은 한국에서 엘리트 채널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다만 YTN의 시청은 반드시 케이블에 가입해야 시청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연구를 참고하면 케이블 뉴스 전문채널은 공중파TV 뉴스를 대체해서 시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서로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결론이 우세하다. 즉 상황에 따라서 시청자들은 공중파TV의 뉴스도 보고 케이블 뉴스도 보며 뉴스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케이블 방송 가입이 관건이다. 일차적으로 케이블 방송을 보는 사람만이 YTN을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고정적인 뉴스 포맷을 깨야

YTN이 반드시 치러야 할 사안이 있다. 그것은 YTN만이 갖는 YTN 익스크루시브(exclusive)를 많이 챙겨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말로 하자면 독점이라고 할까? 여기서 '많이' 라는 말은 욕심인지도 모른다. 단 하나라도 좋으니 YTN을 거쳐야만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우리와 같이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우리 주변에는 뉴스로 처리될 소재가 너무 많다는 것과 뜻을 같이 한다. 뉴스와 관련된 인물과 심층 면접을 통하여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끌어낼 수도 있고 기자가 하고자 하는 의욕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기서 피터 아넷과 같은 기자가 필요하다. 그런 인물은 우리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가 기자를 격려하고 나름대로 충분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한 퍼스칼러티가 가능하다. 거기 에다 YTN이 갖는 언론의 탐사기능을 심분 발휘하면 YTN 익스크루시브가 탄생되리라 본다.

기자들에게 너무 무리한 부탁이 될지 모르지만 사건이 터지고 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늦게 취재를 마치는 기자 근성이 나와서 끈질기게 사건의 후속처리를 마무리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채널에서 다루는 뉴스와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YTN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서 시간적으로 충분한 뉴스채널을 이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자에 달려

있다.

물론 여기서 뉴스라는 말은 다른 뉴스와 관련된 편성을 모두 포괄한다. 이미 서구에서는 뉴스를 '뉴스쇼'라 불릴 정도로 뉴스는 즐기며 시청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뉴스는 쇼와 같다. 뉴스를 접하면서 절대 긴장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뉴스가 너무 강성뉴스만 다를 필요가 없다. 연성 뉴스라 해도 얼마든지 시청자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우리는 너무 밤 9시 뉴스에 길들여져 있고 강성뉴스에도 너무 타성이 붙어 있는지도 모른다. 웬만한 뉴스로는 이제 놀라지도 않는다. 이런 고정 관념적 뉴스 포맷을 깨는 것이 YTN의 중요한 기능인지도 모른다.

### 살아있는 뉴스를

또 하나의 제안으로는 뉴스원을 가능한 많이 모으라는 것이다. 그것은 CNN의 전략이기도 했다. 가장 훌륭하고 감격스런 감동의 뉴스는 우리들 주변에서 나온다. 모든 감정의 집결이 바로 우리 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사 내의 인력만으로는 절대 그런 뉴스를 뽑아낼 수 없다. 뉴스는 소재지의 다양화와 다원화에서 비롯된다. 서울과 지방, 부유층과 빈곤층 등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원의 규모와 비례한다.

뉴스는 살아 있어야 한다. 그것이 뉴스의 본질이다. 그리고 뉴스는 익스크루시브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유지해야 할 언론의 당연한 경쟁력 강화책이다. 흔히들 우리 사회에 언론의 통로가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 신문도 너무 많다고도 야단이다. 신문이나 텔레비전마다 다루고 있는 뉴스는 거의 똑 같다. 텔레비전이야 주어진 편성시간이 있으니 그렇다치고 갈수록 신문 읽는 시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언론은 자기들 간의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사회적 불의를 지적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뉴스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는 한국의 언론은 그다지 많지 않다. YTN이 이를 만족 시켜주는 역할을 발휘한다면 시청자는 환호할 것이다. 아마 YTN을 보기 위해서 케이블을 연결시키겠다는 가정은 어찌 보면 늘어날 것이다.

올해로 YTN은 창사 10주년을 맞는다고 한다. 발달심리학자 피아제의 이론에 따르면 지금이 구체적 조작기이다. 즉 이제 목욕탕에서 혼자 머리를 잘 감고, 혼자서도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세상의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나이에 접어들은 것이다. 물론 아직 성년을 이룬 것은 아니다. 따라서 YTN의 무궁한 발전은 지금부터이다. 마냥 젊어오르는 피를 사회적 정의를 되살리는데 쏟는다면 틀림없이 머지않아 우리나라 언론의 대표주자가 되리라 확신한다.

<b>게시판</b> <b>■ 입사</b> 이형규(타워사업국) 7. 26 / 문춘일(총무부 - 부산지국 파견) 8. 16 <b>■ 퇴사</b>	문준식(타워사업국) 7. 15 / 김진희 마케팅1부장(부국장대우), 조현봉(총무부 - 부산지국 파견) 8. 16 <b>■ 전보</b> 박갑록 부국장 감사실 감사위원 / 이병균 마케팅1부장 / 안재열 마케팅2부장 직대 / 장준희	마케팅2부 / 홍혜주 문화사업팀 8. 16 / 지정훈 전략기획국 파견, 이상순 편집1팀 파견 9. 1 <b>■ 부음</b> 손재호(대구지국) 병모상 8. 1 / 이정우(제작기술부) 병부상 8. 6 / 유석현 문화과학부장 부친상 8. 24	<b>■ 결 혼</b> 유제동(제작기술부) 8. 21 / 홍선기(사회1부) 8. 29 <b>■ 출 산</b> 서승철(제주지국) 득녀 7. 19 / 김호준(정치부) 득남 7. 20
---	--	--	--

특파원 도착 인사

# “무사히 안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장영달 의원과 함께

워싱턴에 도착한 게 6월 15일이었지요. 그러나 벌써 한달 보름이 되어 갑니다. 한달 보름이라...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불과 며칠밖에 안된 듯 합니다. 사실 정신 차릴 틈도 없었습니다.

“잘 도착했다”는 안부인사에 이어 “잘 계시나”고 서울 부모님께 문안인사 올린 게 불과 이틀 전이었습니다.

집과 차, 이사와 보험, 인터넷과 tv 설치... 혼자 지내며 해결해야 했던 많은 일들은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기도 했지만 엄청난 ‘소득’을 얻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함이 있는 법, 남들보다 적응력 면에서 훨씬 좋아진 듯 합니다.

워싱턴 딜레스 공항에 혼자 도착하던 날, 연수 중이

던 채문석 차장을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요, 우리 YTN 가족이 공항까지 마중을 나왔으니 말입니다. 호텔로 직행했습니다. 집을 구해서 입주한 7월 1일까지 지내던 곳입니다. 명칭은 홈스테드 호텔인데 사실은 ‘원룸’이지요.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연결하던 곳. Wireless 인터넷을 사용하면 좋았을 텐데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니, 벌써 월이 터졌습니다.

고 김선일씨가 피랍됐고 며칠 뒤 살해됐습니다. 뭐가 뭔지도 잘 몰랐다는 게 솔직하지요. 배석규 선배가 가르쳐준 대로 yahoo와 google을 열심히 드나들며 또 washingtonpost.com을 비롯한 현지 언론 사이트를 기웃거리며 하루하루 기사 거리를 찾아 헤맸지요. 그렇게 매일같이 일종의 초조와 불안감속에서 지냈고 그제 일상화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 6시 집문을 열면 향긋한 풀냄새와 함께 따끈따끈한 The Washington Post가 저를 반깁니다. 또 CNN과 FOX, 그리고 c-span등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무슨 기사를 송고하지.....”

불과 한달사이엔 격세지감이랄까요. 사실 홈스테드 호텔에 머무는 동안 한 끼의 식사도 제대로 해 먹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기 저기 취재현장을 찾아다닙니다. 한국대사관에도 갔었고 csis에서 주최한 세미나에도 참석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다녀왔습니다. 별 우스운 소리 다 한다고 하겠지만 차를 몰고 워싱턴 D.C.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적응도를 가능해볼 수 있으니까요. 한손에는 mapquest.com에서 찾은 지도를 들고 머리 속으로는 질문 요지를 정리하면서 말입니다.

이제야 가까스로 제 자리를 찾아가나 봅니다. 그래도 아직 특정 장소를 갈 때는 번번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그런데 찾아가다보면 꼭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택시를 선도차량으로 세워 따라가다 보면 10달러 정도의 택시요금을 물게 됩니다. 택시요금을 물지 않아도 될 날이 곧 오겠지요.

이제는 현지 언론인들은 물론 워싱턴 한인회 사람들도 가끔은 만납니다. YTN을 모르는 분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YTN의 위상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4-5통의 전화를 받았습니. LA와 밴쿠버를 오가는 친구가 있는데 “어제 네 리포트를 보았노라”고 합니다. 또다시 새로운 짐을 지게 된 듯 합니다. 갈수록 제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미주지역에서 tv와 라디오를 통해 고국소식을 시시각각으로 접하는 현지 교민들과 대하다 보면 우리 YTN이 가야할 길이 무엇이라는 어떤 확신을 마음속에 갖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2004년 7월 28일

워싱턴에서 정영근 올림.

사건기자 수습기

# ‘4년차 수습기자’의 변명



황순욱(사회1부)

누가 들어도 고개를 가우뚱할 표현, ‘4년차 수습기자’. ‘수습기자’라는 말에 왠지 어색한 수석이 ‘4년차’. 내가 사회부 사슴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고개를 가우뚱 했었다. 솔직히 나 자신도 가우뚱 했었으니까. 어쩌면 사슴이 된지 6개월이 되지만 여전히 ‘기자 황순욱’에 대해서 가우뚱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형사계가 몇 층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경찰서로 달려갔던 첫날부터 많은 것이 달라졌다. 평소 친했던

선배들은 ‘성질 더러운 악마(?)’로 보이기 시작했고, 귀엽기만 했던 후배들은 느닷없이 대단한 녀석들로 보였다. 그것은 모르는 것,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래도 4년차라고 다른 회사의 ‘진짜수습’한테 기죽지 않으려고 애쓰던 내 모습은 지금 생각하면 피식 웃음이 나온다.

그런 나에게 쏟아지는 지적과 비난들을 감당해 내기 위한 보호본능이었을까. 시간이 흐르면서, 조그만 충격에도 통통 튀는 고무공 같던 내 자존심은 어느 샌가 물기를 잔뜩 흡수할 준비가 있는 스펀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래, 맘대로 이야기하라고! 조금 늦게 시작한 것뿐이니까!’라고 되뇌며 수백 번 넘게 아래로 쳐지는 어깨를 치켜들었다. 지금도 매일 조금씩 내 자신의 스펀지에 적당한 습기를 조금씩 적시고 있다.

얼마 전 6개월 수습 끝나는 후배들에게 ‘사람’이 된 것 축하한다고 이야기했었다. 그리고 나도 7월 말에 ‘사슴’이 된지 6개월이 지났고, 결국 내가 오히려 그들보다 뒤늦게 ‘사람’이 된 것이다. 그 동안 얻은 것도 참 많았다. 우선,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은 소중한 자산이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소중한 경험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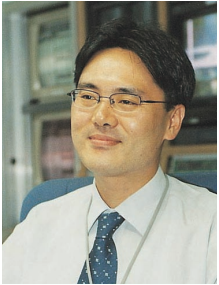
빼놓을 수 없다. 불과 6개월밖에 안된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굵직굵직한 사건이 줄줄이 발생했고 그 현장에는 내가 있었다. 부친초등생과 포천여중생 살해사건, 김선일 피살사건. 그리고 유명철 연쇄살인사건까지. 지금 돌아보면 지난 6개월은 그야말로 좌충우돌 그 자체였지만, 운 좋게 특종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물론 주변 선배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지만 ‘특종’을 할 때 그 기분은 정말 짜릿했다.

반대로 포기해야 했던 것도 물론 있었다. 신혼생활은 포기하다시피 했다. 결혼 1년도 안된 집사람은 내가 집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그저 고마워했을 정도다. 맨 정신으로 귀가한 날이 손에 꼽힐 정도로 연이 어지는 술자리도 적잖은 부담이었다. 그 덕분에 체중은 6개월 만에 6킬로그램이 늘었다. 절대로 생활이 편해서 살찌는 거 아니니까 오해 마시길.

큰 사건 ‘뭉’ 먹지 않고 무사히 하루하루를 넘어가길 바라는 사회부 경찰기자의 생활을 두고 누군가 ‘하루살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매일같이 새로운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회부 경찰기자의 생활은 흥미로움 그 자체다. 나의 호기심과 흥미에 발동을 걸어 주는 힘이 있다. 오늘도 나는 구두 질끈 매고 경찰서로 뛰든다.

창의상 수상기 - 인터넷을 이용한 화면 수신

# 비용절감의 획기적 방법



조민철 (해외방송팀)

지난 3월18일 출범한 YTN인터넷내셔널의 『재외동포뉴스』는 전 세계 통신원들이 보내오는 재외동포들의 소식들을 방송하는 프로그램으로 쓰이는 영상자료는 100% 특급항공우송(DHL)이유해 수신했는데, 평균3일 정도의 운송시간과 건당 7~10만 원 운송비용은 항상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 이미 낡은 방법 !!

인터넷을 이용해서 화면을 전송하는 방법은 그리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방법도 비교적 간단한 편으로 ENG 나 6mm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PC로 전송해서 파일을 FTP로 전송하면 되는 방법이다. 이미 몇 년 전

에 기술국에서 검토해서 TEST 완료했던 방법인데 어렵게도 해외에서 사용할 방법과 필요성에 의해서 사용되어지지 못했는데 이제야 세상을 빛을 보게 됐다. 글로벌 시대를 살면서 필수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손님이 많다. YTN이 그동안 국내에만 전력투구해온 사이 600만 재외동포들의 소식은 사정권 밖이었는데, 그들을 대변할 창구 역할을 YTN이 하게 되어서 여간 흐뭇한게 아니다.

### 아테네에서의 시도

얼마 전 스포츠팀 최동호 사수가 찾아왔다. 이번에 아테네 올림픽 취재 가는데, 인터넷전송이 가능한지..... 물론~ 바로 O. K 사인을 냈다. 비용절감과 더불어 일일이 위성정약하며 타지(他地)에서 가슴 졸이는 수고를 줄일 수 있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송속도다. 미주지역이 보통 1분~2분 정도

의 리포트를 전송하는데 30분정도 소요한다. 하지만 올림픽 개최국에서 제공되는 미디어센터에서 전용선으로 전송한다고 하니 기대를 걸 수밖에..... 150억의 중계권료와 더불어 막대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공룡들을 상대로 최초로 시도하는 YTN만의 고효율 저비용의 신화창조를 기대해본다. 아자~

### 욕심을 그득그득 채워~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일일이 수작업 하듯 통신원 하나하나 매칭하는 작업이 꽤나 시간을 잡아먹는다. 카메라의 종류, 편집, 컴퓨터의 환경, 인터넷 속도, 전송방법 등 일일이 물어보고, 설명하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 어디서 귀찮다고 하는 편집 소프트웨어나 장비가 있으면 시험해보고 대비시켜 가장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임무이다. 아직까진 LA, 뉴욕, 필리핀 등 고정적으로 수신하는 곳이 8군데 이긴 하지만, 통신원 숫자 늘러가는 재미에 조금씩 조금씩 욕심을 채워본다. 항상 그림자처럼 도와주는 박형일 사수가 있어 고마울 뿐이다.

## 사내기고

# 지상파 DMB를 준비하며...



송진욱 (기술연구소 준비팀)

DMB의 시작은 라디오의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유럽의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에서 비롯한 것으로 DAB의 데이터 서비스 중 비디오까지 전송하게 한 것이 DMB다. DMB는 지상파 DMB와 위성DMB로 나뉘는데 미국식 DTV의 단점인 이동수신이 안되는 것을 보완하기위해 DMB의 도입을 고려했고 DTV방식이 미국식으로 결정됨으로서 도입시기가 당겨져 2004년 말까지 지상파 DMB를 시범서비스 하기로 했다. 지상파 DMB는 KBS를 중심으로 하여 Ch.12번에서 세 개의 멀티플렉스 중 두개를 할당받았으며, SBS도 멀티플렉스를 하나 할당받아 실험방송을 하고 있다. 위성DMB는 SKT에서 휴대폰 가입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수익모델이 한계에 이르자 새로운 사업모델로 찾아낸 것이다.

### 지상파DMB와 위성DMB의 차이점

첫째, 무료 서비스나 유료 서비스나 라는 것이다. 지상파DMB의 경우 KBS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사용하지 않는 TV채널(Ch.12번과 Ch.8)에 서비스를 하는 것이므로 채널 수에 제한이 있고, 서비스하는 방송수가(비디오 6개 오디오 9개 데이터 3개정도 예상)적으며 무료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위성DMB의 경우에는 선발업체인 SKT의 TU미디어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2004년 9월경에 비디오 11채널, 오디오 25채널, 데이터 3채널 등으로 방송을 시작할 예정으로 지상파보다 방송채널수가 많고 월 시청료를 받는 유료방송이다.

둘째는 이동수신 방법이다. 지상파DMB는 일반 TV처럼 송신소에서 발사한 전파를 수신하는 것으로 기존의 Eureka-147인 DAB시스템에 이동 중에도 비디오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여러정정 기능을 향상시키고 각 부분별 디지털 압축효율을 높인 것이다.

위성DMB는 시스템E 방식을 도입하고 여기에 동영상을 송출을 위한 규격을 포함시킨 것으로, 방송을 인공위성으로 송출하고 단말기는 인공위성에서 전송한 방송을 수신하여 보게 되며, 이때 사용되는 주파수는 S-Band인 2.63GHz~2.65GHz와 12GHz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 위성DMB의 경우 위성에서 발사한 전파를 수신하기 때문에 미약한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이동통신의 중계기에 해당하는 갭필러(Gap Filler:약 500m커버)를 사용하며 지상파DMB는 기지국을 사용하는데 약 60~70km까지 커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지상파DMB도 수신이 잘 안되는 음영지역에서는 갭필러를 설치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www.ytnbeta.com 기술실적란 'DMB의 이해' 참조)

### DMB방송의 장점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이동 중에도 고품질의 비디오, 오디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디오 서비스는 방송사의 보도, 영화, 스포츠, 드라마, 음악, 오락·게임 등이 동시에 방송되므로 선택해 시청할 수 있으며, 이동 중에도 보고 싶은 프로그램의 시청이 가능하다. 오디오의 경우에는 수십 개의 채널에서 CD음질로 서비스를 받게 된다. 둘째는 이동 중 받는 막강한 데이터 서비스다. 데이터 서비스는 흔히 생각하는 뉴스정보와 교통정보, 기상정보, 증권,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데이터 서비스뿐만 아니라 길 안내, 맛있는 집 찾기, 관광정보, 의학정보 등의 서비스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셋째는 라디오방송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며 이동통신의 영역에 있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비디오 영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이동수신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 새로운 단말기 사용의 중대에 따른 관련 산업의 진흥과 콘텐츠 개발업체들의 발전이 기대된다.

### 기존 방송에서 DMB방송으로 전환할 때 문제

송수신 등 기술적인 사항보다 모든 이동통신 기기가 가지는 공통의 해결책인 배터리 사용시간이 가장 큰 문

제다.(현재는 3시간 정도 시청가능)

또 이동수신이라는 점과 최대 7인치 화면으로 수신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콘텐츠의 개발이 중요한 것은 위성DMB의 경우 예상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주시청대는 아침 7:30~9:00, 12:00~13:30, 17:30~19:30으로 나타나 출·퇴근시, 점심시간 등 이동시에 시청을 주목적으로 하며 가벼운 오락, 속보성 뉴스, 단편정보 등에 대한 수요가 크고 부가 서비스로 교통정보와 쇼핑 게임다운로드, 뮤직비디오,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을 보기를 좋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번 사용시간은 30분 정도로 조사됐다. DMB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콘텐츠의 문제가, 하드웨어적으로는 단말기와 배터리 문제들만 해결된다면 DMB는 우리생활에 새로운 미디어도구로 등장할 것이다.

### YTN 과제

이에 발맞추어 YTN은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의 총아인 지상파 DMB 시대를 대비해 전략기획국을 중심으로 사업권 획득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술연구소는 지상파DMB용 장비나 시스템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연구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기술연구소가 처리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뉴미디어 시대의 총아인 DMB와 함께 디지털 FM방송을 대비해 기술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디지털 CATV방송과 데이터 방송 연구, IT기반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신기술 개발, 안정적인 화상전화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송시스템 제어와 진단장치 개발 등이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선거 방송용 그래픽 표출시스템 개발과 선거방송 데이터·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최종적으로 선거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외부 의존적인 방송기술을 지양하고 YTN만의 독자적인 방송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뉴미디어 방송시대에 앞장서는 YTN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부서의 더 많은 탐과 노력이 필요하고 외부적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YTN미디어 매체설명회



#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



박세윤  
YTN미디어 마케팅 1팀장

2004년 7월 13일 오후 2시 한강 세모 유람선 업체로부터 긴급전화가 왔다. 전화내용은 7월14일 오후 6시에 예정된 'YTN미디어 매체설명회' 선상이벤트를 기상 악천후로 취소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폭우로 한강에 물이 범람할 지경에 처해 유람선을 띄울 수 없다는 업

300여명의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광고담당 임직원분들에게 YTN미디어의 출범 취지와 의미를 잘 전달한 행사였다.

행사 취지는 첫째, 기존 '코미디TV'와 '무비플러스' 채널이 국내 유일의 보도채널인 YTN과 결합해 자회사인 YTN미디어로 새롭게 출범함을 광고업계에 알리는 것이며 둘째, 케이블TV 출범이후 지난 10년간 언론매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인내와 도전정신으로 뉴미디어를 선도해온 YTN이 종합미디어그룹으로 제2의 도약을 선포하는 가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표원수 사장과 배석규 전무가 이런 취지를 참석자들에게 자세하고 명료하게 잘 전달했다. 시종일관(始終一貫) 흐트러짐 없이 자리를 지켜준 300여분의 광고주와 광고대행사의 임직원분들이 금번 행사를 잘 치러낼 수 있게 한 큰 요인이었다. 개그맨 김한석 씨의 사회로 진

행된 행사는 중간 중간에 공연과 경품 추첨으로 흥미와 참석의 의미를 상승시켜줬다.

'YTN미디어 매체설명회'가 진정한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본 행사에 참석한 광고주와 광고대행사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분들과 연계된 광범위한 광고인들과 지속적으로 친숙한 관계를 유지해 YTN미디어 발전에 큰 기여를 해야 한다. 그러한 사명의 중심에 YTN 미디어 마케팅국 광고인들이 서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크나큰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본 행사를 계기로 마련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성실하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광고마케팅을 추진해야겠다.

본 행사에 참석해주신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여러분들,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YTN과 YTN미디어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사 진행에 불철주야 수고하신 저희 마케팅국장 이하 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체 측의 설명이었다.

행사를 주관해온 마케팅 팀원들은 소식을 접하고 아연실색(啞然失色)!! 어안이 병병한 상태가 됐다. 한 달여 동안 준비한 행사가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남은 시간은 단 하루, 약 30여 시간 내 실행 가능한 대안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행사연기 또는 장소변경이라는 대안 중에 심사숙고를 거쳐 장소변경! 행사강행! 이라는 숙명의 대안이 결정됐다. 그러나 다음 문제는 하루 전날 행사장 섭외가 가능한가와 250여명의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참석예정자들에게 장소변경을 신속하게 통보하는 것이다.

오후 늦게 6시가 돼서야 천신만고 끝에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대연회장으로 장소가 확정됐다. 곧이어 참석 예정자들에게 전화와 이메일 등을 동원해 장소변경을 고지하고 다음날에도 재차 확인을 거듭했다. 다들 현 상황을 이해해주는 입장이었다. 하늘의 도움이 작용했던 것 같았다.

지금 생각하면 주마등같이 지나간 아찔한 순간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YTN미디어 매체설명회는 자평(自評)하면 큰 무리 없이 무난하게 치렀으며, 타평(他評)하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예상보다 많은



YTN단신



### '올 인' 주인공 차민수씨 성금 전달



소설 '올 인'의 실제 주인공이자 프로바둑기사인 차민수씨가 최근 그림 전시회를 열어 얻은 수익금 1,542만원을 8월 13일 YTN에 기탁했다.

YTN은 차씨가 기탁한 성금 가운데 542만원을 몸이 불편해 생활이 어려운 프로기사 이준학씨에게 그리고 1,000만원을 명진 보육원 등 5개 보육원에 각각 전달했다.

### 도라산역서 '8·15 평화콘서트'



광복 59주년과 정전 51주년을 맞아 8월 15일 서부 최접경지역인 비무장지대 도라산역에서 남북한의 화합과 통일을 기원하는 '8·15 평화콘서트'가 열렸다.

이번 8·15 콘서트에는 실향민들과 군 장병 및 가족, 그리고 경기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발한 모범 청소년 등 2500여명이 특별손님으로 초청됐다. YTN으로 생중계된 이번 행사는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문화일보가 함께했다.

### 사장과의 대화



회사 발전과 비전 등 직원들의 관심사항을 사장과 만남을 통해 알아보는 '사장과의 대화'가 8월 24일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표원수 사장은 새사옥 이전, 월드와이드넷 인수 등 중요한 변화가 있었고 지금도 변화의 와중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 것은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성과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DMB 진행사항, 인력 충원문제, SNG 도입, 시청률 육성 방안 등 회사운영과 발전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해외연수기 - 호주 그리피스 대주

## '셀부르'의 애보리진 가족



뒷줄 왼쪽부터 상하이 출신의 밀리, 송태엽 기자, 버트 버튼, 조셉 버튼, 몰바이 출신의 밀린드 앞줄 왼쪽부터 홍콩출신의 프랭키, 버튼씨의 손자 보우만

지난 1년간 호주 퀸즈랜드주의 주도 브리즈번에서 연수하면서 제가 하고자 했던 일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가 가족과 함께 지내기, 둘째가 기자로서 제 자신을 세계화하기, 셋째가 석사학위 취득하기였습니다. 성취도는 반대순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피스(Griffith)라는 역사는 짧지만 매우 국제화된 대학에서 언론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현재의 학자, 언론인들과 사귀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가졌고 밀린 애정을 마음껏 표시해주었습니다.

언론학 공부의 주제는 1. 세계화 시대의 소수자(minority) 소외현상에 대한 언론의 대응, 2. 점점 강력해지는 일방주의 속에서 변화하는 아시아와 한국의 위치, 3. 평화와 갈등해소를 위한 언론의 역할, 4. 소수자

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기 위한 뉴미디어 활용방법으로 잡고 해당과목을 수강하고 여름학기에 논문을 썼습니다. 4번 목표를 위해 '디지털 미디어 입문'이라는 실무적인 과목을 수강했는데 높은 학생의 한계로 인해 낙제 위기를 겨우 넘기기도 했습니다. 제 논문 제목은 '한국과 호주 보도국 문화 비교연구(Comparative Analysis on Newsroom Culture in Korea and Australia)'인데 제 홈페이지인 '남반구통신'을 곧 개통시켜 올려놓겠습니다.

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호주의 선주민인 애보리진(Aborigine)을 연구과제로 삼았는데 마지막 시험을 끝내고 1904년에 세워진 호주의 첫 애보리진 보호구역을 방문해 그들의 삶을 취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브리즈번 북서부 250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셔버그(Cherbourg)'라는 곳 있었는데 영화 팬들은 혹시 '셀부르'의 우산(The Umbrellas of Cherbourg)에 나오는 프랑스의 도시 이름을 떠올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의 현실은 전혀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초 와카와카(Wakka Wakka) 부족의 거주지였던 이곳이 백년 전에 백인정부가 20여 개 부족을 이주시켜 집단거주하게 했고 철저한 동화정책으로 문화를 파괴했습니다. 실업률 85%라는 수치가 설명해주듯, 가난과 무기력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호주정부가 보조금(dole)을 지급해 생활수준이 극빈은 아니었지만 과거유산의 총화인 언어와 문화를 잃어버렸고 그에 따라 미래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양식 있는 애보리진들은 '식민주의(colonialism)'에 대해 강

한 반감을 갖고 있지만 2.2%밖에 안되는 인구수와 대물린 가난으로 인해 압도적인 주류문화에 대항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셔버그에 갈 때 영화와 경영학을 전공하는 몰바이와 홍콩, 상하이 출신 학생들로 촬영 팀을 구성했는데 과거 영국과 일본 등의 식민정책을 경험한 나라출신이라 그런지 애보리진들과 쉽게 정서적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셔버그에서 만난 버트 버튼(Bert Button, 사진 중앙)씨 가족은 4대가 한집에 사는 대가족이었는데 잃어버린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어린 손자 보우만(Bowman, 버튼씨가 안고 있는 아이)에게 세 살 때부터 디주리두(didgeridoo, 호주 선주민의 전통악기)를 가르쳤다고 하더군요. 보우만의 증조할아버지인 조셉(Joseph, 버튼씨 왼쪽의 할아버지)은 그 집에서 유일하게 와카와카 부족의 언어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방문의 결과는 다큐멘터리로 제작 중입니다.

셔버그 방문결과를 저를 초청해준 현지 로터리 재단의 모임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개개인이 인종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역사가 그렇고 이를 고치려 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제 결론에 일부는 불쾌한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상당수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치부에 대한 외국인의 비판을 일부러 초청해서까지 듣고자 한다는 점에서 저는 호주사회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호주로부터 배울 게 있다면 바로 그런 개방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송태엽 차장대우(국제부)

해외연수기 - 조지타운 대

## 향후 3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



채문석 차장(편집2팀)

1년 만에 출근을 하는 나의 마음은 애인을 보러 달려가는 휴가군인의 심정 그대로였다.

나의 애인 YTN은 1년 만에 더욱 세련되고 수려한 용모로 나를 반겨주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한 달음질에 보도국에 도착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 ID가 없어 문을 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보도국에 앉아있는 모 차장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손짓을 했다. 그런데 이 차장은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자기 일에 몰두하는 것이었다. 허적! 나중에 왜 그랬느냐고 물어봤더니 "모르는 사람이 손짓을 해서 그냥 자기 일을 했다"는 것이다. 나를 대하는 회사 동료들의 첫 인성은 "왜 이리 살이 빠졌느냐? 너무 달라졌다."는 것이었다.

사실 나는 달라지고 싶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고통에 가까운 노력을 했다. 지난 15년 동안 나는 매일 새벽~8시 사이에 출입차로 나갔고 술과 사람들을 좋아해서 1주일의 대부분은 자정을 전후해 귀가를 했다. 정신과 육체 모두 방전될 대로 방전된 상태였다.

학교에도 나가고 1주일에 2번씩 영어 튜터도 고용하며 공부도 했지만 내가 가장 주력한 것은 감명을 위한

운동이었다. 게다가 연수 기간 중 늦둥이 아들을 뱃기 때문에 이 아들을 위해서도 오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아버님을 일찍 여읜 나로서는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함께 있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최소한 30년을 버티자는 각오로 운동을 계획했다. 미국 입국당시 몸무게는 환송회 술자리 등의 여파로 93킬로그램까지 올라갔다. 미국에 도착해서 술을 안 마시다보니 몸무게는 저절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4~5킬로그램만 감량될 뿐 더 이상 빠지지 않았다. 결국 운동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올 1월부터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를 돌았다. 한바퀴를 돌면 10분정도 걸렸다. 처음에는 3바퀴도 뛰기 힘들 정도로 내 체력은 바닥이었다. 특히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겨울이어서 찬바람을 쐬며 달리기를 한다는 게 큰 고통이었다. 가끔씩은 날씨 핑계를 대며 달리기를 하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 "도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성취해야 한다"며 스스로를 자꾸 채찍질해 나갔다. 어느 날은 영하 15도쯤 되는 날씨에 달리를 하러 나갔다. 달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운동복에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다. 몸의 땀이 밖으로 새나오면서 고드름이 된 것이었다. 내 스스로가 도전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점차 목표를 세우며 운동을 해나갔다. 한달 감량 목표를 5킬로그램으로 잡아가며 가족 구성원들에게 내기를 걸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음식은 줄이지 않았다. 운

동과 함께 하는 유일한 식이요법은 미리 만들어놓은 냉동차를 수시로 마신 것뿐이었다.

그러나 감량이 예상만큼 빨리 이뤄지지는 않았다. 결국 운동량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좀더 긴 달리기 코스가 필요했다. 백악관과 워싱턴 마뉴먼트 등을 보며 뛰는 포토백 강변 코스도 뛰어보았지만 코스가 짧았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 70킬로미터 정도에 이르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발견했다. 이때부터 점차 뛰는 시간을 늘려나갔다. 앞만 보면서 30분을 뛰어갔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시간을 뛰는 셈이 된다. 이런 식으로 2시간까지 뛸 수 있는 체력을 키웠다. 반환지점을 돌아올 때는 다리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자기 최면을 걸면서 결코 포기하지는 않았다. 내 스스로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었고, 또 그 목표를 이뤄내고 싶기 때문이다. 3시간 달리기도 시도해보았다. 달리의 또 다른 매력은 자기와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너는 무엇이니? 너는 무엇을 할 수 있지? 하며 자기를 담금질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많은 동료들이 "어떻게 살을 뺐느냐?"고 질문한다. 나의 대답은 이렇다. 30분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천천히 뛰더라도 1시간 정도는 달리를 해줘야 비로서 몸무게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K후배! 또 다른 K후배! 술도 더 잘마시고 고품격인 귀하들이라면 1주일만 해도 체문석만큼은 할 것 같은데..."

해외연수기 - 미국 볼 주립대

#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준 연수



사진은 캐나다 톱카마운틴의 루이스 호수 앞

해외연수로 1년간 머문 곳은 미국 인디애나주의 Muncie (먼시) 라는 곳이다. 홀라후프를 소재로 한 영화 허드서커의 대리인 (The Hudsucker Proxy)을 보면, 이시들의 음모에 의해 우연찮게 대기업을 경영자가 된 촌뜨기 노빌만즈(팁 로빈스 역)의 고향이 먼시로 소개되는데, 그곳이 내가 1년간 살았던, 그리고 영원히 내 가슴속에 남아 있을 촌 동네 먼시다.

나는 볼 주립대측의 배려로 우아한 단독주택에서 1년을 거주했다. 학교 바로 옆에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고급 동네인데다 임대료마저 파격적이어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대개 연수를 가게 되면 대학으로부터 Visiting Scholar 의 신분이나 주어지는데 나는 Ball 주립대의 저널

리즘과 텔레콤, 두 개 학과에 걸쳐서 적을 두었다. 개강을 앞두고 하루 종일 새학기 강의준비에 여념이 없는 Faculty들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면서 익숙지 못한 환경과 산사태처럼 쏟아지는 영어로 인해 머릿속이 뜨거워졌고, 집에 돌아와서는 헐떡이면서 거실바닥에 벌렁 드러눕기도 했다. 영어의 바다에 풍덩 빠진 셈이었다. 학교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나면 거드랑이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수업 때는 프로젝트 파트너로 배정된 학생들의 슬랭 섞인 살아있는 생생영어가 나를 힘들게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면서 점차 미국인들과의 어울림이 많아졌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언어라는 것은 결국 의사소통의 한 수단일 뿐이라는 자신감이 커지게 되었다. 수업도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들의 칭찬문화가 참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연구 활동 프로젝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교수는 항상 "What's new? What's good?" 하면서 동료학생들의 의견을 묻는다.

프로젝트가 잘 됐으면 동료들은 너도나도 손을 들어서 입이 마르도록 장점을 찾아서 말해준다. 그렇지만, 프로젝트의 성과가 별 볼이 없다면 칭찬하는 횟수가 부쩍 줄어든다. 바로 이것이었다. 굳이 남을 비판하지 않아도, 칭찬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남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몸에 밴 것을 보고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대학뿐 아니라 우리 아이가 다닌 Westview 초

등학교에서도 수시로 경험 한 것이었는데, 영어에 서툰 아이가 숙제를 완수(?)해 간 것에 대해 너무나 다양한 칭찬을 해주었고, 거기서 아이의 기가 팍팍 살았음은 물론이다. 우리 주변에서는 타인에 대한 칭찬에 인색한 편인데, 나부터라도 남의 장점을 우선적으로 찾아보는 습관을 길러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우리 가족은 학교수업이 없는 방학이나 연휴 때마다 여행을 즐겼다. 남쪽으로는 플로리다의 키웨스트, 동쪽으로는 뉴욕, 서쪽으로는 옐로우스톤까지 1년 동안 떠나는 대로 5만여 킬로미터를 달렸다. 끝이 없어 보이는 인터스테이트 도로를 달리면서 미국이란 큰 땅덩어리가 서럽도록 부러울 따름이었다. 이런 부질없는 상념 속에 내 개인적으로 얻은 큰 소득은, 비록 내가 미국에 비해 작디작은 영토 속에서 살아왔지만, 더 부끄러웠던 것은 나는 그보다도 더 비좁고 작은 가슴으로 살아왔음을 절절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귀국한 뒤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열린 마음, 더 큰 가슴으로 살아가자고 결심을 하고 있으니 이는 해외연수의 보이지 않는 큰 소득 중에 하나로 따질 수 있을 것이다.

1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고, 특히 한국식당 하나 없는 낯선 동네에서 겪은 수많은 사람과 문화체험은 내 삶의 방향을 크게 변화시켜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을 기록해 둔 9천개의 디지털사진 파일은 정리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듯싶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준 회사와 여러 지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이 기정 차장대우 (제작2팀)

해외연수기 - 미국 조지아대

# 디지털 뉴스 실현한 CNN



지난 7월 12일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CNN 본사를 방문했다. 이 곳에서는 해마다 각 나라의 기자와 프로듀서 등 10여 명을 초청해 CNN의 뉴스 생산 과정을 낱알이 공개하는 IPP(International Professional Program)를 운영한다. CNN으로서는 3주간에 걸쳐 각 나라의 기자와 깊은 교류를 쌓는 계기가 되고, 참가 기자들의 입장에서 세계 최고의 뉴스채널이 쌓은 경험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본인에게는 이번 IPP가 미국 체류 1년 동안의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생동감이 넘치고 배운 게 많은 연수였다.

### 테이프가 없는 방송국

연수 첫 날, CNN의 뉴스 룸에서 기자들의 일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테이프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기자와 프로듀서가 일하는 보도국은 말할 것도 없고 뉴스 진행 부조에서도 방송용 테이프를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대신 직원들은 AVSTAR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 서버에 입력된 각종 화면들을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보고 있었다.

이날 일의 흐름은 이렇게 진행됐다. 책임 프로듀서는 톱뉴스와 관련해 방금 전에 수신된 핵심적인 녹취(soundbite)를 런다운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편집 담당 직원(writer)은 화면을 모두 보고 들은 뒤 원하는 부분을 찾아가서 영상 송수신 담당 부서(media operation)에 있는 편집자에게 바로 이메일을 보내 편집을 의뢰했다. 편집이 완료된 직후 이 녹취물은 런다운에 앵커멘트와 함께 하나의 동영상 파일로 첨부돼 실제 방송 때 자동으로 송출이 됐다. 영상물의 디지털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직원들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졌을 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돼 방송 사고도 크게 줄었다는 것이 CNN의 내부 평가이다.

### 건강 뉴스 강화

CNN은 최근 몇 년 사이 의료 관련 뉴스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자 이를 전담하는 팀을 20명으로 보강했다. 이 팀의 대표 주자는 뇌수술 전문의인 굽타 박사(Dr. Gupta). 그는 프로듀서와 의료 담당 기자들과 함께 신뢰도가 높은 건강 관련 뉴스를 제작하고 있다. 일주일의 절반은 병원에서 진료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CNN에 머물며 방송 출연과 프로그램 제작을 준비한다. 그는 IPP 참가자들과의 면담에서 "의료 관련 뉴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 속에 CNN이 발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방송사의 인지도가 훨씬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결국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은 방송 콘텐츠만이 인터넷 등 다매체 환경에서 시청자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셈이다.

### CNN Headline의 고성장

CNN U.S. 채널과 함께 미국 내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널에는 CNN Headline이 있다. 18-34세 젊은 층을 목표 시청자로 삼는 이 채널은 최근 들어 시청률이 두 자리 수 이상 수직 상승하고 있다. Headline 제작진은 젊은 층이 심각하고 복잡한 뉴스를 싫어한다는 점에 착안해 경쾌하고 재미있는 뉴스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CNN News Group은 미국의 여론 주도층을 주요 목표 시청자로 삼는 CNN U.S. 채널과 함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CNN Headline 채널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영향력과 수의 증대 측면에서 상승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뉴스 산업 전망 밝다"

CNN News Group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TBS의 켄트(Kent) 회장은 CNN의 앞날에 대해 매우 낙관하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미국 방송 시장에서 채널은 크게 늘었지만 여론을 주도해 가는 부유층을 주요 시청자로 두고 있는 곳은 오로지 CNN 등 뉴스 전문 채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뉴스 채널의 전망은 무척 밝다는 얘기다. 그는 "훌륭한 언론(good journalism)은 훌륭한 비즈니스(good business)를 보장한다"라는 경영 철학을 누구도 강조했다.

경영층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CNN 콘텐츠의 연결 망(connection)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라디오, 위성 등을 통해 이용자나 시청자에게 최대한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매체의 영향력을 넓히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YTN과 CNN은 같은 길을 향해 걷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광 업 (사회1부)

# 이제 과학이 어렵다는 편견을 버려!



### 과학은 쉽다

어두컴컴한 실험실에서 머리가 하얗게 썩 한 남자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액체들을 커다란 비커에 조심스럽게 옮기다가, 팡! 하고 폭발한다.

흔히 과학자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영상이 아닌가? 무성영화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우리들의 기억 속에 박혀있는 과학자의 모습이다. TV속의 이러한 과학자들의 모습은 과학의 무한한 영역을 차단시키는 상상력 파괴의 주범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자~ 따라해 보자. 머리뚜껑을 연다. 그리고 과학에 관한 기억을 뿜어버린다. 머리뚜껑을 닫는다. 편견보다는 무지한 것이 낫다.

그렇게 과학을 몰라도 누구나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사이언스+」,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사이언스+」, 사이언스 플러스는 국내외 과학계 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daily 과학프로그램이다.

### ENJOY A EVERYDAY with science

“안녕하세요, 사이언스 플러스의 김미선입니다”라는 김미선MC의 활기찬 목소리로 시작하는 사이언스 플러스. 그 첫 코너는 월요일의 <최신단신>, <현장리포트>, <해외소식>이다. 일주일의 시작인만큼, <최신단신>으로 국내·외 과학계 소식들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현장리포트>에서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의 과학계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해외소식>은 전 세계의 신기하고 재미있는 과학소식들을 전한다. 월요일에는 YTN의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 발 빠른 내용으로 과학계 소식을 두루두루 알 수 있다.

### 화요일은 심층코너들이다.

<신기술포커스>와 <역사 속 과학>은 IT강대국이라는 한국의 기술들과 세계적인 문화유산국인 한국의

문화재 및 유산들을 소개하는 코너들이다.

<신기술포커스>에 등장하는 제품들은 마치 007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신기한 것도 있고, 현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들이 소개된다. <역사 속 과학>은 과학프로그램에서 빠질 수 없는 코너로 우리 선조들의 슬기로움을 자랑한다.

### 수요일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과학계의 중심축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 보는 시간이다. 한정호MC의 노련한 진행으로 딱딱한 과학계 사람들의 이미지가 한결 부드러워진다. 한 예로 막연히 어려웠던 과학기술부 외 정부기관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해서 우리나라의 과학계를 움직이는지 새삼스레 알 수 있었다.

### 마지막 목요일에는 <인사이드 시네마>와 <달려라 장영실>이 있다.

<인사이드 시네마>는 보통 영화소개 프로그램과 비슷하다. 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으로 <사이언스 플러스>의 재미난 감초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영화제작 과정에서 사용되는 첨단 과학기술들이다. 영화를 보면서 신기해하던 바로 그 장면을 어떻게 제작했는지?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 보여주는 <인사이드 시네마>이다.

「사이언스+」 마지막 코너인 <달려라 장영실>.

제목에서 풀풀~ 풍기는 이미지로 짐작하듯 우리선조 발명가 장영실처럼 발명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발명품소개 뿐만 아니라, 발명 및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5개월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달려라 장영실>에 나타난 발명가들은 정말 우리를 놀라게 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발명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됐다. 발명가가 전 세계 직업 중에서 최고라고 외치는 그런 이들을 만나본다.

### 사이언스+

과학만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사이언스+」의 플러스는 괜히 사이언스의 옆구리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변을 맴돌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과학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또 과학이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녹아있다는 사실이 <사이언스+>가 담고 있는 기본뜻이다.

주위를 둘러보라.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과학이다.

진 보라 (사이언스+ 작가)

